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호 [루게 제24805호] 주체104(2015)년 1월 27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력사적인 호소에 따라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때에 우리 인민의 생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킬 야망을 로골적으로 씨벌인 불구대천의 원수 날강도 미제와 구천에 사무칠 특대형범죄행위를 또 다시 감행한 인간추물들, 만고역적무리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하여 백두산총대가 무섭게 퇴성치고있다.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고있는 전군의 장병들이 일단 명령이 내린다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의 칼바람같이 단숨에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을 삼켜버릴 복수의 맹세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있는 격전전야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차수와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특근대장이 선두장갑차와 자행포에서 도하전투를 지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은 빨찌산지휘관들처럼 돌격의 제일선, 원수격멸의 맨 앞장에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라 앞으로!》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의 구령만을 치게 되면 백날, 천날이 가도 싸움준비를 완성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휘관의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이 전투현장에서 높이 울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도하장은 불도가 니마냥 끓어번지였으며 아군기계화타격집단은 《적》전에 노도 같이 진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산과 강하천이 많고 사계절특성이 다 다른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 조건이 군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계절적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어떤 자연지리적, 기상기후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적들을 전격적으로 섬멸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부장인 특근대장 현영철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특근대장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겨울철도하방법을 작전과 전투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기계화타격집단들이 전진과정에 맞다드는 모든 강하천들을 신속히 도하할수 있는 전투조직과 지휘 및 실천능력을 높여 인민

군대의 공격능력을 더한층 제고하는데 훈련의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아군의 기도와 《적》군의 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연습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전투지대가 돌파당한 《적》들은 폭이 넓은 강의 자연계선을 리용하여 방어를 조직하고 력량과 기재를 집중함으로써 공세적인 방어행동으로 아군기계화타격집단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차후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발악하였다.

기계화타격집단의 자행포들이 주체적인 포병화력타격전법으로 《적》의 거점들에 강력한 포사격을 들이댄데 이어 전투원들의 과감한 습격행동이 진행되었으며 선견대가 《적》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엄밀도하여 강상의 섬에서 배수망어하는 《적》들을 소멸하고 방어계선들을 순식간에 장악하였다.

이어 전진보장구분대들이 뜰다리를 비롯한 각종 도하기재들을 리용하여 기계화타격집단구분대들의 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 장마철이든 겨울철이든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 나라 군사행동지대의 특성에 맞는 전법과 훈련방법을 부단히 연구하여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맞다드는 강하천과 산악지대들을 단숨에 극복할수 있는 실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기계화타격집단들이 공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진보장임무를 맡은 구분대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진보장임무를 맡은 단위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이 끝난 다음 훈련의 우결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오늘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적방침권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올해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를 배격하고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강력한 공격이자 철통같은 방어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공격능력을 갖추고있어야 적들이 최전연전방 우리의 눈앞에서 줄망스름게 늘어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전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반미대결전의 승리의 전풍을 빛나게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강군으로 그 이름 빛내일것이며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 소동과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리며 무모하게 도전해나서는 경우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우리의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로

다스려나갈것임을 다시금 파시하시였다.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으로 되어버리고 불과 불, 핵과 핵의 대결만이 남은 조건에서 미제와 특대형도발자들이 우리의 선의와 아량, 거들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너덜거린다면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것이며 우리의 타격은 일단 시작되면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중단없이 벌어지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지식경제시대는 이런 선구자들을 부른다

자연에너지를 전기·기계·화학·소재의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놓고

자연에너지개발교류사가 창립된지는 3년이 안된다. 규모도 크지 않고 첫걸음을 떼며 불과하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 개발하여 내놓은 새 기술제품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수요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다.

그중히 꾸러림 첨단급생산지에서 우리식의 독특한 기술로 다량생산하고있는 대출력반도체정류소자와 조중정류소자등을 그 리용범위가 넓고 인민경제적의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개발되자마자 대단한 호평을 받으며 여러 분야와 단위들에 광범히 도입되고있다.

이곳 연구집단이 새로 연구제작한 1kw 고효율발전기도 종전의 풍력발전기들에 비해 성능이 좋고 여러모로 우점이 많아 도입한 단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있으며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지식 자원에 의거하라

지식경제란 말 그대로 지식자원에 기초한 경제이다.

누가 더 많은 인재를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발전의 지름길로, 생명으로 되고있는 지식경제시대에 인재와 정보관리능력은 해당 단위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사활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연에너지개발교류사의 인재육성과 관리, 정보수집과 효율적인 리용추진에는 주목할만 한 점이 많다.

창립된지 얼마 안되는 이 단원에서 주력으로 되는 연구력량의 평균나이는 20대이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발을 떼며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되어 첨단수준의 목표들을 련속 돌파하며 자기 열정이 뚜렷한 새 기술제품들을 척척 내놓을수 있었는가.

두말할것없이 이 단위의 인재육성과 관리계획에 명백한 대안이 있다.

물론 이곳에 배치된 연구사들중에 뛰어난 수재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대학기간에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였다 하여 연구직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다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이 맡은 분야에 정통하고 폭넓은 지식을 쌓을수 있게 인재육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조건과 체계를 바로세워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단위의 인재육성과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자연에너지개발분야에서 볼 때 이 단위는 영로부터 시작하여 하는 초학초나 같았다. 연구집단도 대학졸업생들을 위주로 새로 조직되었고 참고할만 한 연구자도 적고보존도 확보된것은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이곳 일꾼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배치된 대학졸업생들을 빠른 시

날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 생산이 최대로 밀착되고 과학적연구결과나 착상, 새 기술개발이 생산과 일치되는 지식경제시대는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고도로 과학화할것을 요구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연에너지개발교류사 일꾼들이 내세운 경영전략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창립초기에 벌써 자연에너지개발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돌파하고 자기 열정이 뚜렷한 독립지표들을 개발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 단위 경영전략의 특징은 지식자원을 중시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지식형이며 부단한 기술경진으로 일관된 학습형이다.

청소한 이 단위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선구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한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경영전략은 현시 경제부문 일꾼들이 어떤 모습과 안목으로 자기 단위를 이끌어야 하는가를 시사해주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일단에 정당한 인재들로 키우는것을 첫째가는 경영전략으로 내세웠다

모든 힘이 여기에 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를 알고 세계도 잘 알아야 경영력을 부단히 높이고 첨단인 명마루에 올라설수 있다.

자기를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교류사의 일꾼들은 풍력발전기개발에 일정한 경험이 있는 단위들과 전문연구기관들에 대한 참관과 초빙강의를 부단히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모두가 이 부분의 연구논문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풍력발전기개발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깊이 파악하도록 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참관과 강의, 토론회들에서 보고 느끼고 새롭게 알게 된 측면들을 놓고 발표회도 자주 조직하여 지식을 공고히 하는것과 함께 앞으로 새 기술개발에서 뛰어나게 할 방향과 과학적인 주제를 세우도록 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다.

이렇게 나라의 풍력발전기개발실태를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자기것으로 만드는것은 필요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그 기초위에서 세계를 내다보았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수 있었다. 일꾼들은 누구나 사 세계적 발전 추세와 도달한 높이, 주목되는 최신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모든 연구사들이 임의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제대로 보고 분석할수 있게 외국어실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열풍을 일으킨것이다. 특히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외국어시험과 외국문으로 된 과학기술자료들에 대한 발표모임은 큰 은을 내었다.

오늘날 이 단위의 모든 연구사들은 2~3개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 이 사실자체가 첨단에 도전해나선 그들의 경쟁력과 실력의 일관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해도 실천과 결합되지 못하고 실천에서 실지 은을 내지 못한다면 인재라고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시대는 인재육성과 실천과정을 하나로 일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단위 일꾼들의 인재육성에서 본받을 점은 바로 연구는 곧 실천이어야 하며 또 비단말 속도물 떠나서 그것을 론할수 없었던것을 중자로 틀어쥔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교적 발전된 수준의 풍력발전기들에 대한 특성연구와 매부분들의 분해,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분석과 과정과 자체로 풍력발전기를 설계하고 시험생산한 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적지 않은 자금이 든 발전기들이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연구사들의 실험예약을 위해 매 부분품과 요소들에 이르러까지 전부 해체할 용단을 내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연구실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백히 찾아낼수 있게 한 매우 귀중한 열쇠로 되었다. 첫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시험생산과정에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과학적착상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새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한 계기였다.

이것은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소한 연구집단이 첨단기술에 도전한것은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재육성을 경영전략의 중심교리의 하나로 틀어쥔데 있다.

인재개발수면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적재소리의 말이 있듯이 인재도 바로 써야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이 단위에서는 각이한 연구자들의 령력을 꾸러림서 진공분야만 연구지나 아니라 자질과 취향, 실천능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배치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매 연구실들에 전문분야만 아니라 립접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지식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합쳐져 더 큰 지식을 낳으면서 연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의 부단한 련속은 모든 연구사들의 실력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였다.

풍력발전기도 날개와 발전기, 조중장치, 축전지 등 여러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매 부분품의 기술특성이 좋을뿐 아니라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제품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각 부분을 맡은 매 연구사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뛰어난 인재들을 한곳에 집중배치한것이 아니라 매 연구실들의

력량을 골고루 편성하여 모두가 새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전을 벌리도록 한것은 이 단위가 짧은 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다.

지식경제시대에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는 방대한 정보수집과 효율적인 리용에 대하여 보자.

새 기술, 새 제품의 개발은 정보전과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불과 2년전에 영으로 시작한 이 단위가 현재 보유하고있는 정보량은 참으로 방대하다고 할수 있다. 그만큼 일꾼들로부터 개별적인 연구사들이 이르러까지 정보수집에 대한 정력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총서와 물론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대학 등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모든 통로가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지어 출장지표를 개발하는 관심사도 최신과학기술자료를 비롯한 정보들이다.

정보수집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분류이다. 분류를 떠난 정보리용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매 부분품과 요소들에 이르러까지 전부 해체할 용단을 내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연구실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백히 찾아낼수 있게 한 매우 귀중한 열쇠로 되었다. 첫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시험생산과정에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과학적착상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새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한 계기였다.

부단히 기술을 갱신하라

어느 나라, 어느 기업체나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진 독립지표를 개발하는것을 리상적인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기술경진기가 비할바없이 짧아지고 개발과 갱신자체가 생산의 기본형태로 전환된 지식경제시대에 독립지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 세계적 인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연에너지개발교류사에서 현행생산수준이 아니라 부단한 기술경진주의 학습형경영전략을 내세운것은 또 하나의 학습의 단 한 측면이다.

이 단위에서 리용범위가 광범하면서 도입된 경제적인가 대단히 큰 첨단기술의 대출력정류소자와 조중정류소자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으로 넘어간 과정을 놓고보자.

이곳 연구사들의 고집인 탐구와 노력에 의해 우리 식의 독특한 반도체제작기술이 연구완성되었을 때였다. 첨단수준이 이른 이 기술을 놓고 일부 나라들에서 기술이전이나 합작사를 표시해왔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갖 장성된 교류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손쉽게 튼튼히 다질수 있고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기본생산지표의 하나인 풍력발전기생산공정을 일식으로 그르히 차려놓을수 있었다.

그러나 일꾼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첨단기술에서 서는것이고 주체조선의 이름을 단 독립지표를 개발하는것이다.

개발한 기술을 남에게 팔기는 쉬웠다. 하지만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름길은 그 기술에 토대하여 보다 새로운 높이로 비약하는데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연구사들은 2~3개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 이 사실자체가 첨단에 도전해나선 그들의 경쟁력과 실력의 일관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해도 실천과 결합되지 못하고 실천에서 실지 은을 내지 못한다면 인재라고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시대는 인재육성과 실천과정을 하나로 일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단위 일꾼들의 인재육성에서 본받을 점은 바로 연구는 곧 실천이어야 하며 또 비단말 속도물 떠나서 그것을 론할수 없었던것을 중자로 틀어쥔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교적 발전된 수준의 풍력발전기들에 대한 특성연구와 매부분들의 분해,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분석과 과정과 자체로 풍력발전기를 설계하고 시험생산한 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적지 않은 자금이 든 발전기들이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연구사들의 실험예약을 위해 매 부분품과 요소들에 이르러까지 전부 해체할 용단을 내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연구실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백히 찾아낼수 있게 한 매우 귀중한 열쇠로 되었다. 첫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시험생산과정에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과학적착상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새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한 계기였다.

이것은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소한 연구집단이 첨단기술에 도전한것은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재육성을 경영전략의 중심교리의 하나로 틀어쥔데 있다.

인재개발수면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적재소리의 말이 있듯이 인재도 바로 써야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이 단위에서는 각이한 연구자들의 령력을 꾸러림서 진공분야만 연구지나 아니라 자질과 취향, 실천능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배치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매 연구실들에 전문분야만 아니라 립접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지식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합쳐져 더 큰 지식을 낳으면서 연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의 부단한 련속은 모든 연구사들의 실력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였다.

풍력발전기도 날개와 발전기, 조중장치, 축전지 등 여러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매 부분품의 기술특성이 좋을뿐 아니라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제품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각 부분을 맡은 매 연구사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뛰어난 인재들을 한곳에 집중배치한것이 아니라 매 연구실들의

부단히 기술을 갱신하라

어느 나라, 어느 기업체나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진 독립지표를 개발하는것을 리상적인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기술경진기가 비할바없이 짧아지고 개발과 갱신자체가 생산의 기본형태로 전환된 지식경제시대에 독립지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 세계적 인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해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연에너지개발교류사에서 현행생산수준이 아니라 부단한 기술경진주의 학습형경영전략을 내세운것은 또 하나의 학습의 단 한 측면이다.

이 단위에서 리용범위가 광범하면서 도입된 경제적인가 대단히 큰 첨단기술의 대출력정류소자와 조중정류소자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으로 넘어간 과정을 놓고보자.

이곳 연구사들의 고집인 탐구와 노력에 의해 우리 식의 독특한 반도체제작기술이 연구완성되었을 때였다. 첨단수준이 이른 이 기술을 놓고 일부 나라들에서 기술이전이나 합작사를 표시해왔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갖 장성된 교류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손쉽게 튼튼히 다질수 있고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기본생산지표의 하나인 풍력발전기생산공정을 일식으로 그르히 차려놓을수 있었다.

그러나 일꾼들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첨단기술에서 서는것이고 주체조선의 이름을 단 독립지표를 개발하는것이다.

개발한 기술을 남에게 팔기는 쉬웠다. 하지만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름길은 그 기술에 토대하여 보다 새로운 높이로 비약하는데 있었다.

이들이 연구개발한 1kw급풍력발전기를 통해서도 부단한 기술경진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창조자세를 엿볼수 있다.

남게 하나를 놓고보아도 가볍고 소음흡수성이 좋으며 오랜 수명으로 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되고있는 유리복합강화소자를 재료로 선택하였다. 또한 수심차의 모시힘, 부단한 제작과 운영시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최량화된 제품을 내놓았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은 지역별로 따르는 바람속도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표준화되고 리상적인 날개모형들을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발전기본체생산에서도 부단한 기술경진의 경영전략에 힘입어 협동생산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전문적인 전기기계생산기지가 있는 조건에서 많은 자금과 품이 드는 발전기생산기지를 꾸려야 따로 꾸릴것이 아니라 협동생산에 맞물리기로 하였다.

각이한 형의 발전기들을 대량적으로 만드는 전문화된 대규모생산기지에 발전기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부단히 생산되는 발전기설계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일에 제작할수 있었고 대량생산에 넘어가기도 유리했던것이다.

실제로 발표된 이같은 여러차례에 걸쳐 보다 갱신된 발전기설계안이 나왔다. 그때마다 전문적인 발전기생산기지에서 설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형의 발전기들을 신속 생산해냈으며 그로 하여 얼마든지 계절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연구사들은 2~3개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 이 사실자체가 첨단에 도전해나선 그들의 경쟁력과 실력의 일관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해도 실천과 결합되지 못하고 실천에서 실지 은을 내지 못한다면 인재라고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시대는 인재육성과 실천과정을 하나로 일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단위 일꾼들의 인재육성에서 본받을 점은 바로 연구는 곧 실천이어야 하며 또 비단말 속도물 떠나서 그것을 론할수 없었던것을 중자로 틀어쥔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교적 발전된 수준의 풍력발전기들에 대한 특성연구와 매부분들의 분해,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분석과 과정과 자체로 풍력발전기를 설계하고 시험생산한 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적지 않은 자금이 든 발전기들이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연구사들의 실험예약을 위해 매 부분품과 요소들에 이르러까지 전부 해체할 용단을 내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연구실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백히 찾아낼수 있게 한 매우 귀중한 열쇠로 되었다. 첫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시험생산과정에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과학적착상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새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한 계기였다.

이것은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소한 연구집단이 첨단기술에 도전한것은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재육성을 경영전략의 중심교리의 하나로 틀어쥔데 있다.

인재개발수면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적재소리의 말이 있듯이 인재도 바로 써야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이 단위에서는 각이한 연구자들의 령력을 꾸러림서 진공분야만 연구지나 아니라 자질과 취향, 실천능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배치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매 연구실들에 전문분야만 아니라 립접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지식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합쳐져 더 큰 지식을 낳으면서 연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의 부단한 련속은 모든 연구사들의 실력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였다.

풍력발전기도 날개와 발전기, 조중장치, 축전지 등 여러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매 부분품의 기술특성이 좋을뿐 아니라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제품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각 부분을 맡은 매 연구사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뛰어난 인재들을 한곳에 집중배치한것이 아니라 매 연구실들의

이들이 연구개발한 1kw급풍력발전기를 통해서도 부단한 기술경진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창조자세를 엿볼수 있다.

남게 하나를 놓고보아도 가볍고 소음흡수성이 좋으며 오랜 수명으로 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되고있는 유리복합강화소자를 재료로 선택하였다. 또한 수심차의 모시힘, 부단한 제작과 운영시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최량화된 제품을 내놓았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은 지역별로 따르는 바람속도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표준화되고 리상적인 날개모형들을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발전기본체생산에서도 부단한 기술경진의 경영전략에 힘입어 협동생산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전문적인 전기기계생산기지가 있는 조건에서 많은 자금과 품이 드는 발전기생산기지를 꾸려야 따로 꾸릴것이 아니라 협동생산에 맞물리기로 하였다.

각이한 형의 발전기들을 대량적으로 만드는 전문화된 대규모생산기지에 발전기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부단히 생산되는 발전기설계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일에 제작할수 있었고 대량생산에 넘어가기도 유리했던것이다.

실제로 발표된 이같은 여러차례에 걸쳐 보다 갱신된 발전기설계안이 나왔다. 그때마다 전문적인 발전기생산기지에서 설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형의 발전기들을 신속 생산해냈으며 그로 하여 얼마든지 계절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연구사들은 2~3개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 이 사실자체가 첨단에 도전해나선 그들의 경쟁력과 실력의 일관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해도 실천과 결합되지 못하고 실천에서 실지 은을 내지 못한다면 인재라고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시대는 인재육성과 실천과정을 하나로 일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단위 일꾼들의 인재육성에서 본받을 점은 바로 연구는 곧 실천이어야 하며 또 비단말 속도물 떠나서 그것을 론할수 없었던것을 중자로 틀어쥔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교적 발전된 수준의 풍력발전기들에 대한 특성연구와 매부분들의 분해,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분석과 과정과 자체로 풍력발전기를 설계하고 시험생산한 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적지 않은 자금이 든 발전기들이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연구사들의 실험예약을 위해 매 부분품과 요소들에 이르러까지 전부 해체할 용단을 내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연구실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백히 찾아낼수 있게 한 매우 귀중한 열쇠로 되었다. 첫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시험생산과정에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과학적착상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새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한 계기였다.

이것은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소한 연구집단이 첨단기술에 도전한것은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재육성을 경영전략의 중심교리의 하나로 틀어쥔데 있다.

인재개발수면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적재소리의 말이 있듯이 인재도 바로 써야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이 단위에서는 각이한 연구자들의 령력을 꾸러림서 진공분야만 연구지나 아니라 자질과 취향, 실천능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배치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매 연구실들에 전문분야만 아니라 립접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지식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합쳐져 더 큰 지식을 낳으면서 연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의 부단한 련속은 모든 연구사들의 실력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였다.

풍력발전기도 날개와 발전기, 조중장치, 축전지 등 여러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매 부분품의 기술특성이 좋을뿐 아니라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제품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각 부분을 맡은 매 연구사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뛰어난 인재들을 한곳에 집중배치한것이 아니라 매 연구실들의

이들이 연구개발한 1kw급풍력발전기를 통해서도 부단한 기술경진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창조자세를 엿볼수 있다.

남게 하나를 놓고보아도 가볍고 소음흡수성이 좋으며 오랜 수명으로 하여 세계적인 추세를 되고있는 유리복합강화소자를 재료로 선택하였다. 또한 수심차의 모시힘, 부단한 제작과 운영시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최량화된 제품을 내놓았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은 지역별로 따르는 바람속도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표준화되고 리상적인 날개모형들을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발전기본체생산에서도 부단한 기술경진의 경영전략에 힘입어 협동생산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전문적인 전기기계생산기지가 있는 조건에서 많은 자금과 품이 드는 발전기생산기지를 꾸려야 따로 꾸릴것이 아니라 협동생산에 맞물리기로 하였다.

각이한 형의 발전기들을 대량적으로 만드는 전문화된 대규모생산기지에 발전기생산을 의뢰하는 경우 부단히 생산되는 발전기설계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한 제품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일에 제작할수 있었고 대량생산에 넘어가기도 유리했던것이다.

실제로 발표된 이같은 여러차례에 걸쳐 보다 갱신된 발전기설계안이 나왔다. 그때마다 전문적인 발전기생산기지에서 설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형의 발전기들을 신속 생산해냈으며 그로 하여 얼마든지 계절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연구사들은 2~3개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있다. 이 사실자체가 첨단에 도전해나선 그들의 경쟁력과 실력의 일관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해도 실천과 결합되지 못하고 실천에서 실지 은을 내지 못한다면 인재라고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시대는 인재육성과 실천과정을 하나로 일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단위 일꾼들의 인재육성에서 본받을 점은 바로 연구는 곧 실천이어야 하며 또 비단말 속도물 떠나서 그것을 론할수 없었던것을 중자로 틀어쥔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교적 발전된 수준의 풍력발전기들에 대한 특성연구와 매부분들의 분해, 개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분석과 과정과 자체로 풍력발전기를 설계하고 시험생산한 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적지 않은 자금이 든 발전기들이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연구사들의 실험예약을 위해 매 부분품과 요소들에 이르러까지 전부 해체할 용단을 내었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연구실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명백히 찾아낼수 있게 한 매우 귀중한 열쇠로 되었다. 첫 풍력발전기의 설계와 시험생산과정에 연구사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과학적착상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면서 새새로운 착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한 계기였다.

이것은 첫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청소한 연구집단이 첨단기술에 도전한것은 짧은 기간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재육성을 경영전략의 중심교리의 하나로 틀어쥔데 있다.

인재개발수면에서도 본받을만 한 점이 있다.

적재소리의 말이 있듯이 인재도 바로 써야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이 단위에서는 각이한 연구자들의 령력을 꾸러림서 진공분야만 연구지나 아니라 자질과 취향, 실천능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배치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매 연구실들에 전문분야만 아니라 립접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지식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합쳐져 더 큰 지식을 낳으면서 연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의 부단한 련속은 모든 연구사들의 실력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였다.

풍력발전기도 날개와 발전기, 조중장치, 축전지 등 여러 부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매 부분품의 기술특성이 좋을뿐 아니라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훌륭한 제품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각 부분을 맡은 매 연구사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뛰어난 인재들을 한곳에 집중배치한것이 아니라 매 연구실들의

얼마전 우리가 3대혁명붉은기울을 쟁취한 은과군량정사업소를 찾았을 때

지배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삼천군에 있는 룡양소에 치로받으러 갔다는것이였다.

이 이해하는 우리에게 이곳 일꾼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얼마나 뜨거웠던가.

없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오직 입밖으로 흐르는 지배인의 건강 때문에 초급당비서와 지배인이 《싸움》인물 얼마나 됐는지 모른다. 이는 이야기, 지배인의 병치료와 관련한 당적분공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이는 이야기, 병치료 입원시키면 매일이다시 뛰쳐나오지 지배인의 불같은 성미를 고려하여 초급당비서에게 이번에는 군량책임일꾼들과 비밀리에 토의하고 사업소와 멀리 떨어진 삼천군의 룡양소에 떠돌아보았다는 이야기...

사업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곳 당조직이 3대혁명붉은기울을 쟁취하는데 이룩한 성과의 비결에 대한 높은 대답을 찾는 첫 걸음으로 탄생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울을 쟁취한 은과군량정사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3대혁명붉은기울을 쟁취한 은과군량정사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는 이 운동에서 행정경제 일꾼들의 몫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가 된 마음이 기적을 낳는다

은과군량정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원들이 덕을 보게 하였으며 주지 않았던것이나 다름없던 자제민 땅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경영용성관문제와 종업원들의 열감문제를 풀었다.

그런 지배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비친것은 자기자신의 사업에 공안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초급당비서는 생각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지체없이 지배인을 만나 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생선군을 헤쳐나가는 척후병, 학생의 기관차로서 잠시나마 주춤해라 마음쓰는 초급당비서의 진정을 뜨겁게 느끼며 지배인은 말하였다.

《비서동무, 고맙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셔서...》

초급당비서는 그러는 지배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지배인동무의 그 마음이면 됩니다. 함께 손잡고 땀나 밀어봅시다!》

그러하여 사업소에서는 이미 세웠던 목표외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목표를 더 내세우고 립체전을 들이대게 되었다.

새 대상건설을 위한 열격대가 조직되고 당, 행정일꾼들이 한민당이 되어 일관을 펴나갔었다. 기상장 주방림동무를 비롯한 행정경제일꾼들은 현장지휘를 전두적으로 해나갔고 부비서 한정철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꾼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모험수행에 자신들을 세우고 열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정진력을 최대한

목표를 찌른다

하여 군소재지 거 떠들썩하게 행장을 차리고 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해수욕장에 가는 이례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해수욕장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정신육체적피로를 말끔히 털고 활력과 평안한 저녁 담담하게 돌아오는 종업원들은 일손이 바빠 때에 해수욕을 조직해준 당조직의 응수깊은 마음을 느끼며 더욱더 분발하여나섰다.

그러나 해수욕장에서의 해수욕은 문화정서생활인 동시에 위력한 정치사업으로도 되었다.

이렇듯 마음, 행정책임일꾼들이 위대한 마음이 되어 앞세워 함께 메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등의목표실현에서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이제 지배인이 룡양소에서 돌아오면 그만 못하던 일까지 합쳐졌을 때, 백백의 실적을 올릴것이라는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참으로 결의목표실현기간에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꾼들이 행정경제일꾼들의 역할을 증명하고 그들의 사업을 잘 마무리한 찬란한 사업공로를 3대혁명붉은기울을 쟁취한 은과군량정사업소에서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불비 쏟아지는 천하의 나날에도 화신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배인은 그제서야 초급당비서의 속깊은 마음을 넘겨지고

목표를 찌른다

하여 군소재지 거 떠들썩하게 행장을 차리고 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해수욕장에 가는 이례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해수욕장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정신육체적피로를 말끔히 털고 활력과 평안한 저녁 담담하게 돌아오는 종업원들은 일손이 바빠 때에 해수욕을 조직해준 당조직의 응수깊은 마음을 느끼며 더욱더 분발하여나섰다.

그러나 해수욕장에서의 해수욕은 문화정서생활인 동시에 위력한 정치사업으로도 되었다.

이렇듯 마음, 행정책임일꾼들이 위대한 마음이 되어 앞세워 함께 메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등의목표실현에서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이제 지배인이 룡양소에서 돌아오면 그만 못하던 일까지 합쳐졌을 때, 백백의 실적을 올릴것이라는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참으로 결의목표실현기간에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꾼들이 행정경제일꾼들의 역할을 증명하고 그들의 사업을 잘 마무리한 찬란한 사업공로를 3대혁명붉은기울을 쟁취한 은과군량정사업소에서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불비 쏟아지는 천하의 나날에도 화신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배인은 그제서야 초급당비서의 속깊은 마음을 넘겨지고

광림혁명사적관창립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광림혁명사적관창립 20돐 기념보고회 26일에 진행되

관제부문 일꾼들, 사적관운영원들, 광림군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준설 사적관운영원칙 책임비서기 기념보고회를 하였다.

보고자는 광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항일혁명정신이 뜨겁게 어려있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신군혁명명도자육이 아로써겨져있는 영광의 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와 백두의 내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 확대강화하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광림지구에서 진취적으로 전력적인 정치군사활동을 벌리시였다.

백두산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88(1999)년 9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적관을 찾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혁명의 만민재보인 구조물문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실록판과 백두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이미시작품 등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호문헌, 사적물들의 영구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전설위인들의 혁명정신이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들이 나가 동향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88(1999)년 9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적관을 찾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혁명의 만민재보인 구조물문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실록판과 백두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이미시작품 등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호문헌, 사적물들의 영구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전설위인들의 혁명정신이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들이 나가 동향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88(1999)년 9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적관을 찾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혁명의 만민재보인 구조물문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실록판과 백두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이미시작품 등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호문헌, 사적물들의 영구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전설위인들의 혁명정신이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들이 나가 동향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88(1999)년 9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적관을 찾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혁명의 만민재보인 구조물문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실록판과 백두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이미시작품 등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호문헌, 사적물들의 영구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전설위인들의 혁명정신이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들이 나가 동향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88(1999)년 9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적관을 찾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혁명의 만민재보인 구조물문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실록판과 백두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이미시작품 등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호문헌, 사적물들의 영구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전설위인들의 혁명정신이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들이 나가 동향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 88(1999)년 9월 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적관을 찾으시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혁명의 만민재보인 구조물문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적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실록판과 백두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영상이미시작품 등을 새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호문헌, 사적물들의 영구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전설위인들의 혁명정신이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여러 단위들이 나가 동향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의하여 주체 84(1995)년 1월 25일 광림혁명사적관이 창립되었다.

광림혁명사적관은 창립후 지난 2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

선군정치는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총대 철학을 내놓고 백전백승의 선군혁명철학을 수놓으면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누리며 떨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방식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메히프르동당대표단 단장은 김정일 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있어 조선의 군사력이 비상이 강화되고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도 단호히 쳐잡기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수 있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에zell자사사회의자장 부위원장장은 선군정치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불멸의 기치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더불어 조선은 선군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고의 자주정치》, 《변혁한 자주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방식》,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 이것은 선군정치의 위력에 반복하고 근근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격찬이다.

들어켜보면 지금도 눈곱이 젖어든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어머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맞이했던 주체84(1995)년의 첫아침 다락초소를 찾았었던 우리의 장군님이시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다. 어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새해의 첫 자욱을 이룬없는 이 초소길에 남기시었는지, 어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수호전의 첫걸음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었는지.

우리 장군님께서 전고절으신 그 길 위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침략세력들이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반공화국괴담살책공들이 여지없이 짓부셔지고 우리 조국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매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앞에 우뚝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모습에서 새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정형이 반부하는 오늘에 세계에서 선군정치만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부흥발전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검이라는 절리를 깨닫고있다.

로씨야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는 지난 60여년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총포성을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승리하였다. 총포성없는 승리였다. 세계는 총포성이 울리는 3년간의 전

쟁에서 이기고 세계평화를 지킨 조선의 승리에 감탄하였고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 60여년간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기고 세계평화호에 거대한 기여를 한 데 대해서도 탄복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나온 역사는 침략의 총소리가 들리는 다음에야 두손에 총을 잡게 하는 정치, 침략의 총탄이 나라의 대문을 들부신 다음에야 총과 대포를 만들게 하는 정치의 역사였다. 나라의 땅과 국토, 평화의 파괴도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세계정치는 조선의 새로운 조국수호의 정치, 세계평화호의 정치인 선군정치의 큰 종소리로 하여 깊은 갈에서 깨어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벌써 시작하시고 구원해오시어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펼쳐진 선군정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을 국가중의 국사, 제일우선으로 내세우셨다. 군사정치, 참으로 좋은 주권이다. 그분께서는 군사정권을 조국수호의 근본방식, 침략과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보셨다. 정치사의 대발견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독특한 선군정치는 이 땅에 혁명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이 딱 차넘치는 자랑스러운 선군시대를 펼쳐놓았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역사에 류태없는 현대의 가장 위력한 선군정치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재적이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명장》, 《세계정치를 주도하신 회색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조선의 기치밑에 초강경대응으로 적들을 눌러놓으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조선의 모범을 세계가 따라배우고있다.

그렇다. 진보적인류의 지지와 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21세기 보편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서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보검중의 보검, 백전백승의 정치방식이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선군혁명위업을 꽃피어 계속해나가 시는 또 한층 탁월한 최후투쟁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존엄높은 자주정치, 선군정치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김 수 진

인권유린왕초의 범죄적정체

얼마전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아미에서 한 경찰부대가 살아있는 흑인들의 사체를 사격연습과목으로 삼은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로 하여 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한 흑인은 자기가 흑인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죽음의 대상, 총탄의 파격으로 된대 대해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면서 인종차별의 극치인 미국사회의 죄를 저지하였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다. 그중에는 총기류법정의 성행으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처럼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경찰들이 살아있는 흑인들의 사체를 파격으로 삼고 뼈까지 사격연습을 하는 나라는 없다.

새롭게 폭로된 사실은 미국이 야말로 인종적모순이 폭발상태에 이른 세계 최악의 인권생지옥, 인종증오사상과 무차별적인 살륙만이 횡행하는 인권말살지대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사체를 파격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명색상으로나마 법적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법은 《인권옹호국》이라고 떠벌이는 미국의 색고 병든 사회를 분철하기 위한 빛좋은 개살구로 지나지 않는다. 미국경찰들이 흑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적만행들을 연속 저지르고도 무죄판결을 받고 계속 황제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미국이 《인권보장》을 위한 법

조항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아도 그 모든것은 진실로 인권을 보호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새해벽두부터 총기류법정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있는것이다. 텍사스에서 무장파괴이 병원에 뛰어들어 의사를 살해한 사건, 오하이오주 클럼부스시의 비행장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쏘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총기류법정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온 미국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집에서 사는 바가지 들에 나가고 샌다는 말이 있다. 제 집안을 인권말살의 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권유린범죄를 마구 저지르고있다.

판파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만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투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고있다. 이들중 대부분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것과 같은 법적권리들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의별 고문을 다 받으며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고있다고 한다.

오마하는 2009년 대통령취임시에 1년내에 판파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폐쇄하겠다는것을 국제사회에 공약하였다. 그러나 그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아무런 판결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이고잔인한 행을 하고있는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을 위한 국제규범에 대한 극도의 위반으로

된다.

세계가 한결같이 규탄배격하듯이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왕초는 바로 미국이다.

문제는 미국이 저들의 인권허물은 제겨놓고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들면서 가스통에 넣어두고있는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이 나라, 저 나라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며 혼시질까지 해대고있다. 최근에는 집권자를 비롯한 고위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그 누구에게 가장 흑심한 《인권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내뿜으며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해당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재책동에 매여달리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결코 정정화, 국제화하는것은 저들의 나쁜 인권유린만행들에 대한 국제비난을 무마시키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인권》타령뒤에 내정간섭과 침략이 뒤따른다는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미국은 《인권제판관》처럼 행세하면서 남을 헐뜯으며 돌아갈 자격도 체면도 없다. 미국의 교묘사니는 만사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명백히 미국은 《인권제판관》이 아니라 인권유린왕초이다.

신 경 섭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총성과 정열을 다 바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청춘의 정열을 다 바친 재일조선청년일군들의 총성의 결의모임이 22일 도에 있는 조선화판에서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총련중앙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조선대학교 학생, 조선신보사 사장, 재일조선청년공공회 중앙상임간사회의 간사장, 총련본부 위원장들 그리고 재일본조선류 학생동맹(조청)과 재일본조선류 학생동맹(유학동) 일군들,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허중만이 발언하였다.

그는 재일조선청년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에 청년운동을 하는 참으로 행복하고 긍지높은 새 세대 핵심들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세 세대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애국선열들이 마련해놓은 총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대를 이어 꽃피우어 나가는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었다고 인정하였다.

세 세대 핵심들이 동포들의 행복과 재일조선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총련의 새로

은 전성기를 거머쥐어 열어나갈 결심을 안고 일해나가자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역사적인 선선사와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70주, 총련결성 60주를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애국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총공격을 벌리는 조국청년들과 발걸음을 같이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총성과 정열을 다 바쳐나가는데 대해 피력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결의문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은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로 이역에 사는 재일조선청년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 땅에서 활동하는 조청과 유학동 일군들의 사업까지 다 헤아리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청년핵심이 되라고 더없는 신임을 안겨주시었다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출위인상을 우리르며 위대한 평도자,

은혜로운 스승을 모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해외교포청년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 애국애족운동의 대를 꽃피우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조청과 유학동조직이 안고 있는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사회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애국총성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계화시키자고 다짐하였다.

비전일열성자들과 한담이러가 되어 《총련결성 60주를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총성과 정열을 다 바쳐나가자》를 외치며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은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투쟁의 앞장에서 전격로 열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총정도로 받드는 청년핵심이 되자!》는 구호를 외쳤다.

【조선중앙통신】

절망속에 사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

《만민평등》, 《만민복지》를 제창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생존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실업과 빈곤, 물가상승 등은 그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들을 들이치고있다.

후퇴 시 심각한 경제위기의 후과로 인한 기업체들의 파산은 대대적인 해고사태를 낳고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에 9731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었으며 이 기업체들이 진 빚은 1조 8700억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1280만명의 실업자대군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미국전역까지도 지난해에 한 국경연설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있으며 여전히 직업을 잃고자 인하여 미국인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229만명, 도이쥘란드에서는 약 287만명, 에스파냐에서는 444만 7000여명을 해어리는 근로자들이 로동의 권리마저 잃은

데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실업자증대와 함께 물가와 살림집가격도 경증 뛰여올랐다.

미국에서 지난해 11월에 소비자가격이 그 전과 같은 달에 비해 1.3% 올랐으며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의 1년 동안에 소비자가격이 2.9% 미쳐서 19개월째의 인상을 기록하였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의 1년동안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가격이 4.5%, 영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살림집가격이 그 전과 같은 달보다 7.2% 더 올랐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빈궁에 몰아넣었다.

미국에서는 2013년 한해동안에

만도 4530만명이 빈궁에 시달렸다.

지난 한해동안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는 빈궁자가 1억명 이상 늘어났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250만명이상이 빈궁 선이하여서 살았다.

특히 갈수록 성행하는 총기류법정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새해벽두부터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에게 더 큰 불안과 절망감을 가져다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1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미국과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서 류형적인 살인사건이 여러 무고한 사람들에게 참혹한 피해를 주었다.

범죄의 《왕국》인 미국의 텍사스에서 2건의 총기류법정사건이 터져 3명이 무참히 살해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한 살림집에서는 20대의 청년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동생을 총으로 쏘아죽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캘거리에서 연회장에 뛰여든 범죄자가 총에 맞아 8명의 사상자가 있으며 영국 잉글랜드의 데본주와 워릭셔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반인민적이며 부패한 사회제도과 비롯된 필연적인 산물로서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근로대중의 처지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이 기업체들이 진 빚은 1조 8700억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1280만명의 실업자대군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미국전역까지도 지난해에 한 국경연설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있으며 여전히 직업을 잃고자 인하여 미국인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229만명, 도이쥘란드에서는 약 287만명, 에스파냐에서는 444만 7000여명을 해어리는 근로자들이 로동의 권리마저 잃은

불안과 공포를 몰아오는 주범은 누구인가

새해벽두부터 유럽의 분위기가 산산하다 그지않다.

지난 7일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주간신문 《샤를리 에브도》본사에서 테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1시 30분경경에는 복원을 쓴 무장인원들이 신문사에 뛰어들어 사격을 가하여 10여명을 사살하였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이슬람교도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데 대한 복수라고 하면서 《샤를리 에브도》는 죽었다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저들이 아라비아반도의 《알 카에다》속이라고 내놓고말하였다고 한다.

이전부터 이 신문사는 이슬람교언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만화를 실어 이슬람교도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일부 극단적인 이슬람교도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임의의 시기에 공격을 가하겠다는 위협도 들이쳤다. 심지어 여러차례에 걸치는 테로미수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신문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화를 실었다. 그것이 이번엔 10여명의 사망자를 낸 테로사건으로 이어졌다.

사건발생후 프랑스에서는 에도기간이 선포되고 테로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테로행위를 규탄하면서 피해자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하였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테로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후의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있는것이다.

최근 《샤를리 에브도》가 또다시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실었다. 이것이 이란, 튀르키예를 비롯한 이슬람교도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자아내었고, 이 나라들은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계제는 이슬람교도들을 모욕하여 상자를 주는 도발행위로, 테로와 보복을 부추기는 선동행위로 판다고 비난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계제에 항의하는 이슬람교도들의 시위가 벌어지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져서 사망자까지 나고있다. 니제르에서 테로와 프랑스문화원이 공격을 받고 여러개의 교회당들이 불탔으며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을 모욕하고 풍화를 가하는 사들을 벌이면서 연이어 발생하고있다. 이번 테로사건후 그 누군가가 이 나라의 내부 프르씨카제의 한 이슬람교도신문집구에 이슬람교도들이 먹는것을 금지하고 있는 돼지다귀를 가져다놓았다. 동남부의 한 소도시에서는 17살 난 아랍계고등학교 남학생이 폭행을 당하였다. 어느 한 지명은 한 반발중에 이슬람교도사원이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이번 테로사건을 이슬람교도들과 관련시켜보고있으며 그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테로행위를 감행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로부터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프랑스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일부 유럽나라와 주민들은 이슬람교도이주민들에게 로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한마디로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대척바람이刮고있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있는 이슬람교도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 극단적인 이슬람교도파들은 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공격을 감행하고있다. 이로 하여 유럽은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만일 이대로 계속 나가면서는 유럽은 물론 온 세계가 테로와 보복의 판무장으로 되고 세계적인 종교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것은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모든 사물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간 주범은 도대체 누구인가.

력사를 거슬러올라가볼 필요가 있다. 2001년 미국에서 총격적인 9.11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것을 세계평화를 위한 구실로 삼고 세계를

《반테로전》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반테로전》을 《이슬람교도의 이데올로기전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난 세기의 공산주의와의 싸움과 류사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여기에 유럽나라들이 합세하여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이슬람교도들이 유럽나라들을 대상으로 테로공격을 가할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여론을 내뿜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공포증이 생기고 이슬람교는 테로의 상징처럼 되었다.

이런 환경속에서 시작된 미국 《반테로전》은 말 그대로 이슬람교도소탕전이었다. 《테로박멸》을 떠들며 아프리카나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이 나라들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로 테로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테로공격을 마구 죽였다. 미국은 이슬람교도들의 결혼식장은 물론 장례식장도 《테로지》라고 하면서 공격을 들이쳤고 길가엔 주둔까지 《테로분자》로 몰아 총탄까지 안았다. 미소련군의 무지막직한 군사적공격을 모사한 이슬람교도들이 생중을 당하였다.

미국은 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교 회화를 모독하고 짓밟는 망동으로 테로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슬람교도들이 심성시키는 코란 경을 번기어 처넣었으며 수감자들이 가지고있던 코란경에 의도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코란경을 짓밟는 등의 모독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이 이슬람교도들의

강정을 건드려주었다. 극단적인 이슬람교도파들과는 미국이 야말로 악의 제국이라고 하면서 공격대상으로 정화했으며 유럽나라들이 악에 동조하였다.

세계도처에서 제단적인 테로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있다. 미국과 유럽은 항시적인 테로위국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지금 《알 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적인 이슬람교도파들과는 미국과 그에 동조하여나선 나라들과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것은 누가 이런 테로조작들을 만들어놓았는가 하는것이다. 바로 미국이다. 《알 카에다》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미국은 지난 세계 후반까지 아프리카나 이라크에서 이전 소련군에 맞서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 길가엔 주둔까지 《테로분자》로 몰아 총탄까지 안았다. 미소련군의 무지막직한 군사적공격을 모사한 이슬람교도들이 생중을 당하였다.

미국은 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교 회화를 모독하고 짓밟는 망동으로 테로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슬람교도들이 심성시키는 코란 경을 번기어 처넣었으며 수감자들이 가지고있던 코란경에 의도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코란경을 짓밟는 등의 모독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이 이슬람교도들의

이 부당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재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들에 바라는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혁명군대 부사령관이 22일 오만군사대표단과의 담화석상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들의 분별리간책동 등에 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적들은 이슬람교도들의

이 부당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재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들에 바라는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혁명군대 부사령관이 22일 오만군사대표단과의 담화석상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들의 분별리간책동 등에 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적들은 이슬람교도들의

이 부당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재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들에 바라는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혁명군대 부사령관이 22일 오만군사대표단과의 담화석상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들의 분별리간책동 등에 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적들은 이슬람교도들의

이 부당하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재는 그것을 고안한 사람들에 바라는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혁명군대 부사령관이 22일 오만군사대표단과의 담화석상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들의 분별리간책동 등에 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적들은 이슬람교도들의